

Elizabeth 시대의 복수극에 미친 Seneca의 영향—개관적 재평가

李 京 植

I

Seneca의 비극이 16세기 영국의 비극에 미친 영향이 논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양자 간에 접촉점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네카와 16세기 영국 극작가들 간에 접촉점이 있었음을 여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당시 학교를 다녀 본 경험이 있는 영국인들은 모두 세네카와 접했다. 나전어 문법교육을 위해 거의 고장마다 설립되어 있던 16세기 영국의 문법학교 (Grammar School)는 교과과정에 Seneca를 Ovid, Livy, Tacitus, Virgil, Horace, Plautus 등과 같은 로마 고전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좁혀서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 접촉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당시 대학(Oxford와 Cambridge)이나 법학원들(Inns of Court)에서는 Seneca의 비극들과 Seneca를 모방하여 창작한 Latin어 극들(Anglo-Latin Plays)을 공연함으로써 Seneca의 비극에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¹⁾

둘째, Seneca의 10개 비극 작품들이 1559년에서 1581년 사이에 모두 영어로 번역출판됨으로써 더욱 Seneca의 비극에 접하는 기회가 넓혀졌다. Jasper Heywood는 *Troas*, *Thyestes* 및 *Hercules Furens*를 번역하여 각각 1559년, 1560년, 1561년에 출판하였다. 그에 이어 Alexander Neville과 Thomas Nuce는 각각 *Oedipus*와 *Octavia*를 번역하여 1563년과 1566년에 출판하였다. 또 John Studley는 1566년에 *Medea*와 *Agamemnon* 번역판을 냈으며, *Hippolytus*와 *Hercules Oetaeus*도 번역하여 1560년대 후반에 출판했음이 분명하나 인쇄본이 현존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Thebais*는 Thomas Newton이 이상의 번역들을 모아 1581년에 *Seneca His Tenne Tragedies Translated into Englysh*를 낼 때 직접 번역하여 여기에 포함시켰다.

Newton의 collected edition^o] 동시대인들에게 Seneca 비극을 널리 보급한 공헌은 대단한 것이었다. 동시대 문인인 Thomas Nashe가 Robert Greene의 *Menaphon*에 preface격으로 기

* 본 논문은 1987년 문교부 학술조성연구비에 의한 것임.

1) F.S. Boas, *University Drama in the Tudor Ag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14), esp. p. 389; G.C. Moore Smith, *College Plays Performed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23), esp. pp. 53-57; Alfred Harbage, 'A Census of Anglo-Latin Plays', *PMLA*, Vol. LIII, No. 2 (June 1938), pp. 624-629; Leicester Bradner, 'The Latin Drama of the Renaissance (1340~1640)', *Studies in the Renaissance*, Vol. IV, (1957), pp. 31-70; J.W. Binns, 'Seneca and Neo-Latin Tragedy in England', *Greek and Latin Studies: Classical Literature and Its Influence* ed. C.D.N. Cost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pp. 205-234.

A20
Seb 1h
1988

고한 'To the Gentlemen Students of both Vniuersities'에서

Yet English *Seneca* read by candle light yeeldes manie good sentences, as *Bloud is a begger*, and so foorth: and if you intreat him faire in a frostie morning, he will affoord you whole *Hamlets*, I should say handfulls of tragical speaches.²⁾

라고 한 것을 보면 가히 그것의 영향력을 짐작할만 하다.

세째, 16세기 영국의 비평가, 극작가들이 *Seneca*의 비극에 정통함을 보여주는 언급을 했거나 그것에서 직접 원문인용을 한 예를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William Webbe는 그의 *Discourse of English Poetrie*(1586)에서 *Seneca*를 'a most excellent wryter of Tragedies'로 호평하였으며, Robert Wilmot는 *Tancred and Gismundo* 부친 'The Epistle Dedicatory'에서 *Seneca*를 'inferior to none of the best of that kind'라고 높이 평가했다. George Puttenam 역시 그의 *Arte of English Poesie*(1589)에서 *Seneca*를 Euripides, Sophocles와 더불어 'Poets Tragical'로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 놓았다.

Philip Sidney는 *An Apologie for Poetrie*(1595)에서 *Gorboduc*에 충만한 'stately speeches and well-sounding phrases'가 *Seneca* 문체의 결정에 오르고 있다('climbing to the height of Seneca's style')³⁾고 평했으며, Francis Meres는 로마고전극작가들 중에서는 *Plautus*와 *Seneca*가 희극과 비극에서 각각 최상이라고 평하였다.

As *Plautus* and *Seneca* are accounted the best for Comedy and Tragedy among the Latines: so *Shakespeare* among y English is the most excellent in both kinds for the stage....⁴⁾

The Spanish Tragedy 3막 13장에서 Hieronimo가 책 한권을 들고 나와 Latin원문을 인용하고 영역하는 등의 문맥을 보면 이 책은 *Seneca*의 원문비극전집으로 보인다. Shakespeare는 *Hamlet* 2막 2장에서 Polonius를 통해서 궁정을 방문한 배우단이 어떤 묵직한 비극이나 경쾌한 희극도 자유자재로 연기해 낼 수 있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Seneca cannot be too heavy, nor Plautus too light'⁵⁾라고 명시적으로 *Seneca*를 언급하며, *Seneca*의 비극의 성격을 'heavy'란 말로 평가하고 있다. John Marston 역시 *The Malcontent* 3막 1장에서 Bilioso 와 Pietro의 대화를 통해 'Marry, I remember one *Seneca*, Lucius Annaeus *Seneca*'라고 *Seneca*의 이름을 정확히 거명하면서 그가 'temperance and fortitude'에 관한 글을 썼다고 했다.⁶⁾ 이상은 Kyd, Shakespeare, Marston이 *Seneca*의 비극에 친숙하고 있었음을 예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Elizabethan dramatist들이 10여개 그들의 극작품에서 *Seneca*의 비

2) Thomas Nashe, 'To the Gentlemen Students of both Vniuersities', *Menaphon* by Robert Greene (London, 1589), sig. **3.

3) Philip Sidney, 'An Apologie for Poetry' in *English Critical Essays* ed. Edmund D. Jon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2), p. 94.

4) Francis Meres, *Palladis Tamia; Wits Treasury* (London, 1598), sig. Oo2.

5) William Shakespeare, *The Tragical Historie of Hamlet* (London, 1605), sig. F3.

6) John Marston, 'The Malcontent' in *English Drama 1580~1642* ed. C.F. Tucker Brooke and N.B. Paradise (Boston: D.C. Heath and Company, 1933), p. 378.

극들을 원문으로 인용한 사실이다. Kyd는 *The Spanish Tragedy*에서 *Agamemnon*과 *Troades*에서 모두 4행을 원문인용하고 있다.⁷⁾ Shakespeare의 작품은 그가 Seneca 외에도 Ovid, Virgil 등 많은 Latin 작가들에 대한 이해가 커음을 보여준다. A. Schmidt의 통계(*Shakespeare Lexicon*의 Appendix III)에 의하면 Latin자구들과 원문인용이 134개나 있다. Shakespeare는 *Titus Andronicus*에서 Seneca의 *Hippolytus*로부터 두번에 걸쳐 모두 3행을 인용했다. Marston은 어느 다른 극작가들보다 Seneca의 원문을 더 많이 인용한 극작가였다. *Antonio and Mellida, Antonio's Revenge, The Malcontent, The Fawn*에는 *Thyestes, Agamemnon, Octavia, Thebais, Oedipus*에서 무려 29행(非劇작품의 8행포함)이나 인용되어 있다.

이 외에도 Marlowe와 Tourneur도 Seneca의 비극에서 원문인용을 하고 있으며, 작가 미상의 것까지 합하면 Seneca의 비극에서 원문인용하고 있는 Elizabethan play만도 10여개에 달한다. 물론 Seneca의 비극의 대목들을 모방한 개연성이 높은 시행들이 많은 Elizabethan play들에서 발견됨은 말할 것도 없다.

이상의 모든 예증들은 Elizabeth시대 극작가들이 Seneca의 비극들을 원문으로 혹은 영역본으로 읽음으로써 이들과 Seneca간에는 접촉점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II

이상에서 우리는 Elizabethan playwright들이 Seneca와 접촉점이 있었음을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이들에 미친 Seneca의 영향을 연구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source’연구(Quellenforschung) 혹은 ‘influence’연구가 갖는 대전제이다. 즉 이는 사실들(facts)을 취급한다기 보다는 가능성들(possibilities), 기껏해야 개연성들(probabilities)을 다루는 분야라는 점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influence’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Seneca의 비극이 16세기 영희곡에 미친 영향을 언급한 사람은 A.W. Ward였다. 그는 영국의 최초 비극작품인 *Gorboduc, or Ferrex and Porrex*(1561년 초연)가 Seneca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쓰여졌으며⁸⁾, 소재를 영국전설에서 취했으나 제작방식은 Seneca의 *Thebais*에 기초한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⁹⁾

Ward 다음으로는 J.A. Symonds가 역시 Ward처럼 회곡사적 관점에서 *Gorboduc, Jocasta*(1566년 초연), *The Misfortunes of Arthur*(1588년 초연)는 모두 Seneca의 ‘method’를 모방했으며, 이들의 저자들은 Seneca의 ‘followers’라고 불렀다.¹⁰⁾ 그는 특히 *The Misfortunes of Arthur*의 Gorlois 혼령이 *Thyestes*의 Tantalus 혼령과 *Agamemnon*의 Thyestes 혼령과 유사하다면서 Seneca에서 적수입된 것이라고 단정했다(‘The Ghost, imported from Seneca into English tragedy, had a long and brilliant career’).¹¹⁾

7) Thomas Kyd, ‘*The Spanish Tragedy*’ in *English Drama 1580~1642*, op. cit., p. 125. Seneca의 비극 인용은 F.J. Miller가 두 권으로 영역한 *The Loeb Classical Library Edition* (London, 1917)에서 함.

8) A.W. Ward, *A History of English Dramatic Literature* (2 vols) (London: Macmillan & Co., 1875), i, pp. 106-107.

9) *Ibid.*, p. 108.

10) J.A. Symonds, *Shakespeare's Predecessors in the English Drama* (1884) (London, 1900), p. 191 and p. 196.

11) *Ibid.*, p. 192.

그러나 ‘Seneca의 영향’이란 문구가 들어간 논제를 가지고 이를 논한 것은 H. Schmidt의 ‘*Seneca’s Influence upon Gorboduc*’(1887)이 그 효시이다. Schmidt는 Ward처럼 *Gorboduc*이 plot에 있어서 *Thebais*를 model로 삼았다고 했으나 결코 *Thebais*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Seneca의 다른 비극들의 영향도 받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 5막 끝에만 chorus를 생략한 것이 Seneca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nuntius를 도입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살상을 무대위에 올리지 않은 것은 Seneca의 영향이 분명하다고 했다.¹²⁾

뿐만 아니라 Schmidt는 *Gorboduc*이 지닌 Seneca의 영향은 문체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띠인다면서 ‘artificial, rhetorical, and sententious’한 Seneca의 style, ‘reiteration of phrases, mythological expressions and periphrases’를 특징으로 갖는 Seneca의 style과 흡사한 대목들을 *Gorboduc*에서 찾아 무수히 제시하고 *Hercules Furens*, *Medea*, *Octavia*, *Troades*, *Phaedra(Hippolytus)*, *Thebais* 등 Seneca의 거의 모든 비극에서 해당 대목들을 병기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Gorboduc*에서 ‘hand’, ‘heart’, ‘breast’, ‘flame’, ‘sceptre’가 Seneca의 사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이다. ‘hand’의 경우만 본다면 Schmidt는 *Gorboduc*에서 Ferrex, Porrex, 기타 인물의 살인행위를 묘사할 때 ‘hands’(*manus*)가 관계되었음을 언급한 예 14개를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Seneca의 대목 24개를 역시 제시하고 있다.

And with his owne most bloudy hand he hath
His brother slaine... (944)

Egone ut parentis sanguine aspersam manum ...contingam? (HF 372-3) (What! I touch a hand
stained with my father's blood...?)

virgo, dextra caesa parentis... (*Octavia*, 297~298)¹³⁾ (O virgin, slain by thy father's hand)

Seneca의 영향에 관한 이와 같은 확신으로 Schmidt는 이상의 Seneca 비극들과 *Gorboduc*이 보이는 시적 표현의 유사점으로 보아 후자가 받은 고전의 영향은 오로지 Seneca의 것일 뿐이란 생각을 정당화해 준다고 믿었다.

The striking resemblance of poetical expression in the tragedies in question will justify the suggestion that a classical influence is due only to Seneca....¹⁴⁾

Elizabethan tragedy 전반에 걸친 Seneca의 영향 연구는 1893년에야 비로소 나왔다. John W. Cunliffe는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 An Essay*란 논저를 내고 본격적으로 Seneca의 영향을 다루었다. 이는 책명 자체에 ‘Seneca의 영향’이 명시된 최초의 것이며, *Gorboduc* 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 Schmidt의 논문과는 달리 Norton과 Sackville, Hughes, Wilmot, Kyd, Marlowe, Shakespeare, Marston, Greene, Peele, Chapman 등 20여 극작가의 *Gorboduc*, *The Misfortunes of Arthur*, *Tancred and Gismund*, *The Spanish Tragedy*, *Titus Andronicus*, *Richard III*, *Hamlet*, *Macbeth*, *Antonio and Mellida*, *Antonio's*

12) H. Schmidt, ‘*Seneca’s Influence upon Gorboduc*’, *MLN*, Vol. II, No. 2 (February 1887), pp. 31-32.

13) *Ibid.*, p. 33.

14) *Ibid.*, p. 31.

Revenge, The Revenge of Bussy D'Anbois 등 많은 Elizabethan drama를 대상으로 삼았다. 언급된 16세기 극작품들이 모두 90여편이란 점만 보아도 Cunliffe의 영향연구가 얼마나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Cunliffe는 총론과 각론에서 Seneca의 영향을 16세기 영국희곡에서 추적하고 있다. 총론에서는 내용과 형식상의 영향이 개괄적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면 Cunliffe가 찾아낸 Seneca의 영향을 간추려 소개한다. 첫째, 주인공의 introspection 혹은 reflective self-analysis와 이로 인한 복수지연(procrastination 혹은 supineness)이다. 둘째, Seneca의 fatalism 또한 Elizabethan tragedy에 처음부터 흐르고 있는 맥이다. 세째, 피비릿내나는 살상과 복수, 근친상간 등으로 점철되는 sensationalism. 네째, rhetorical exaggeration 혹은 bombastic rant. 다섯째, 경구나 격언조의 짧은 말을 교환하는 논전인 stichomythia. 여섯째, 5막 구조. 일곱째, chorus의 도입. 여덟째, nuntius(messenger)를 사용하여 무대위에 올리기에 부적절한 폭력사들을 보고하게 하는 일. 아홉째, nuntius 이외에도 nurse, servant, tyrant 등의 stock character들의 사용. 열째, ghost의 사용. Cunliffe는 ghost를 Seneca의 유산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¹⁵⁾ 그는 Symonds의 ‘the Ghost, imported from Seneca into English tragedy, had a long and brilliant career’를 매우 적절한 평으로 인용하면서 ‘But the most important inheritance of English tragedy in this respect was the Ghost’라고 동조한다.¹⁶⁾ 조금 뒤에 가서 그는 ghost와 chorus가 ‘the most striking features of Seneca’ 중에 포함되었음을 이 두 요소를 Elizabethan tragedy의 가장 현저한 특징들로 평한 동시대 증언인 작가미상의 *A Warning for Faire Women*(1599)의 Induction을 볼 때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How some damn'd tyrant to obtain a crown
 Stabs, hangs, impoisons, smothers, cutteth throats:
 And then a Chorus, too, comes howling in
 And tells us of the worrying of a cat:
 Then, too, a filthy whining ghost,
 Lapt in some foul sheet, or a leather pilch,
 Comes screaming like a pig half stick'd,
 And cries, Vindicta!—Revenge, Revenge!¹⁷⁾

이번에는 Cunliffe가 각론 격으로 논한 많은 개별 작품 중에서 몇개를 압축하여 소개한다.

(1) *Gorboduc*—문체에서 Seneca와의 유사성은 시종 분명하며, 긴 대사들과 ‘grave sententious precepts’는 ‘unmistakably in Seneca's manner’이다. 2막 1장의 ‘Knowe ye that lust of kingdomes hath no lawe...Of noble conquestes in the händes of kinges’는 *Agamemnon*의 264행과 269~272행의 확대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유사한 대목들을 세개 더 *Hercules Furens*, *Thebais*, *Troas*에서 *Gorboduc*의 해당대목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15) John W. Cunliffe,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 An Essay* (London: Macmillan and Co., 1893), pp. 14-44.

16) *Ibid.*, p. 44.

17) *Ibid.*, pp. 46-47.

*Gorboduc*에는 Seneca에서처럼 젊은이의 impetuosity, 자만의 위험, 운명의 변덕, 죽음의 확실성 등에 관한 교훈적인 경고들이 들어 있고 Seneca가 즐겨 내세운 Tantalus, Ixion, Furies 등에 대한 인유들이 있으며, Videna의 대사가 지닌 수사적 과장 또한 Seneca에서 왔다.¹⁸⁾

(2) *The Misfortunes of Arthur*—소재만 전설적 영국역사에서 왔을 뿐 전적으로 Seneca의 방식에 따라 엮은 작품이다. 행들, 대사들, 장면들을 전면적으로 Seneca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Agamemnon*, *Hippolytus*, *Medea*, *Hercules Furens*, *Oedipus*, *Thebais*, *Troas*, *Hercules Oetaeus*, *Octavia*, *Thyestes* 등의 발췌문으로 된 하나의 모자이크에 불과하다.¹⁹⁾ Seneca에서 직접 빌려다 사용한 것이 315행에 달하고, Seneca에서 시사를 받아 이루진 대목이 부지기수임을 원문과 병기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다.²⁰⁾

(3) *The Spanish Tragedy*—stichomythia 등 문체상에서 Seneca의 영향이 보이며, Seneca를 원문으로 직접 인용들을 했고 번역문도 사용하였다. 혼령이라든가 bloody horrors가 들어 있으나 Kyd가 발전시킨 형태임을 볼 수 있다.²¹⁾

(4) *Titus Andronicus*—*The Spanish Tragedy*에서처럼 Seneca의 원문인용이 들어 있으며 소재와 문체, physical horror, revenge가 다 Seneca에서 왔다.

The subject and style of the tragedy are thoroughly Senecan....

No detail of physical horror is spared; from beginning to end the stage reeks with blood, and the characters vie with one another in barbarity. Even the gentle Lavinia helps to prepare the Thyestean banquet; and Titus and his sons are no less eager for revenge....The style exaggerates even those heaped-up horrors, and the passions are often strained to artificiality. The descriptions of rural life and scenery...are not strange to Seneca.²²⁾

Seneca의 reflective tendency도 강한 예 이는 물론 *Hamlet*에서 절정에 이르며, *Macbeth*에서는 비단 주인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에서 보게 된다.²³⁾

(5) Marston의 비극들—Marston은 16세기 영국극작가 중 가장 많이 Seneca의 영향을 받은 작가로서 Seneca의 비극작품과 산문에서 원문이나 역문으로 인용한다. *The Fawn*은 *Thyestes*와 *Oedipus*에서 원문을 인용했으며, *The Malcontent*에서는 Seneca가 거명되며, 5막 2장에서 Mendoza가 *Agamemnon*의 한 행(115)을 번역으로 인용하자 Malevole는 원문('Pooh! per sclera semper sceleribus tutum est iter.')을 인용함으로써 그를 편찬한다. 이 외에도 이 작품에는 *Hercules Furens*, *Thebais*에서 번역해 옮겨 놓은 대목이 다섯군데나 있다.

그러나 Seneca의 영향을 가장 크게 입은 것은 *Antonio and Mellida*(1부)와 *Antonio's Revenge*(2부)이다. Cunliffe는 1, 2부에서 다섯개의 Seneca극의 대목들과 흡사한 일곱개의 parallel passage들을 예로 들고 있고 이 중에는 *Medea*의 161행에서 원문인용한 'Numquam

18) *Ibid.*, pp. 48-50.

19) *Ibid.*, pp. 52-54.

20) *Ibid.*, 'Appendix II' (pp. 130-155) 참조.

21) *Ibid.*, p. 21 and p. 58.

22) *Ibid.*, p. 69.

23) *Ibid.*, p. 71 and pp. 79-80.

'potest non esse'도 있다. 또 그는 Appendix 1에서 *Thyestes*, *Agamemnon*, *Octavia*로부터의 원문인 용 6개(모두 15행)를 제시했다. 후자의 2막 1장에서도 그는 *Octavia*와 *Thyestes*으로부터의 12행과 parallel을 이루는 대목 4개를 제시하고 있다. 또 이 막은 *Agamemnon*에서의 원문인 용구로 끝나고 있다. 그 다음 장면도 'thoroughly Senecan in conception and execution'이다. 5막 서두에서 Andrugio의 혼령이 *Octavia*의 Agrippina 환영이 말한 2행(629-630)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을 소개하고 있으며, 최종장면도 idea와 날말에 있어서 *Thyestes*의 것을 취하고 있다.²⁴⁾

이상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Cunliffe는 Elizabethan tragedy에 미친 Seneca의 영향을 확고하게 믿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여 개선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였다.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는 Seneca 영향 연구에 있어서 마치 A.C. Bradley의 *Shakespearean Tragedy*(1904)가 오늘날 셰익스피어 비평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오늘날의 Seneca 영향론은 Cunliffe의 논저에서 출발해서 그것에서 끝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 An Essay*는 소위 'seminal' work인 것이다.

III

Cunliffe의 논저 이후의 Seneca의 영향 연구는 적어도 1920년대까지는 간혹 Cunliffe가 Elizabethan drama의 중세고유전통을 언급하지 않은채 Seneca의 고전전통만을 강조한 테대하여 그리고 Seneca와의 parallel passage들을 절대적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하여 회의 내지는 거부감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의 결론들을 화인하고 강화시켜 줄 뿐이었다. 영국희곡의 중세전통에 대하여는 Cunliffe 자신이 그후에 발표한 글들에서 그것의 존재와 의의를 지적하였다.²⁵⁾

그러면 1893년 이후 1929년까지 나온 Seneca의 영향 연구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몇 개 알아 보기로 한다. 우선 H.A. Watt의 논저 *Gorboduc; or Ferrex and Porrex*(1910)이다.

Watt는 이 논저의 'VIII : Senecan Influence'에서 *Gorboduc*에 미친 Seneca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Seneca의 비극이 번역되고 또 완역본까지 나오는데 끄치지 않고 당시 영국의 대중극과 비대중극 모두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Gorboduc(1562) is pure Seneca. *Tancred and Gismunda*(1568) is Seneca applied to the telling of a romantic story of modern passion.'이라고 한 F.E. Schelling의 말²⁶⁾에서 출발하고 있다.

"*Gorboduc*," says Schelling, "is pure Seneca." This is a very extreme statement of the case.

24) *Ibid.*, pp. 98-103.

25) John W. Cunliffe, 'Chapter IV: Early English Tragedy', *The Cambridg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Vol. V ed. A.W. Ward and A.R. Waller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10), pp. 61-88 and *Early English Classical Tragedies*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12)의 'Introduction' pp. lxiii-lxxix.

26) Felix E. Schelling, *Elizabethan Drama 1558~1642* (2 vols) (London: Archibald Constable & Co. Ltd., 1908), ii, p. 401.

There exist in our first tragedy altogether too many veins of native ore to permit us to call the drama "pure Seneca." A more conservative statement would be this: Norton and Sackville have introduced into their play so much that is Senecan that *Gorboduc* may be classed together with the two English tragedies which follow it, *Gismond of Salerne* (1568) and *The Misfortunes of Arthur* (1587) as a "copy" of Seneca.²⁷⁾

여기서 우리는 Watt가 *Gorboduc*에 들어있는 많은 native element를 강조하면서도 *Gorboduc*을 Seneca의 절대적인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극작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Watt의 다음 말에서도 알 수 있다.

No student acquainted with the ten tragedies ascribed to Seneca can read *Gorboduc* without being convinced that...the latter is pretty thoroughly saturated with Senecan influence. In form, in style, and at times even in phraseology, we can trace the imitation.²⁸⁾

따라서 1893년의 Cunliffe와 Watt의 본질적 차이는 native element에 대한 후자의 의식일 뿐이다. 자연 Watt는 Seneca와 *Gorboduc*간의 유사점을 뜯지 않게 차이점을 길게 다루었다. 그는 *Gorboduc*의 Chorus가 dumb show의 교훈을 설파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Seneca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기능이며, 이 국이 Seneca국의 주요한 machinery인 ghost를 갖지 않았음을 특히 강조한다.²⁹⁾ 양 국의 유사점들로서 그는 Schmidt와 Cunliffe가 이미 제시한 parallel passage들을 다량수록하고 있다.³⁰⁾

그는 특히 Schmidt가 *Gorboduc*에서의 *hand*('manus'), *heart*('animus') 등의 단어 사용이 Seneca의 것과 같다고 한 지적을 원용하여 '*Gorboduc*, while not pure Seneca because of certain definite native elements, is, nevertheless, closely copied in dramatic construction, in idea, and in language from the tragedies ascribed to the Latin poet'라고³¹⁾ 그의 앞서의 결론을 재확인하고 본질적으로 Schmidt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Consequently I have been forced to conclude with Schmidt that "the classical influence is due only to Seneca." It would probably be safer to modify this statement somewhat, and say that all the classical traces in *Gorboduc* may b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Senecan tragedies.³²⁾

Watt가 Cunliffe의 주장을 강화해 주는데 크게 기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F.L. Lucas는 비록 Seneca의 영향을 인정했지만 Cunliffe가 대변하는 영향연구방법과 일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목을 끌었다. 즉 그는 Chapman과 Marston이 Seneca의 신체를 졌다는 증거는 납득이 가지만 세익스피어가 Seneca에서 빌려왔다는 대목들은 회의적으로 만든다면서 Cunliffe 등이 제시한 증거의 대부분은 우연의 일치로 생각한다고 했다.

27) Homer Andrews Watt, *Gorboduc; or Ferrex and Porrex*. Bulletin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No. 351 (Madison, 1910), p. 57.

28) *Ibid.*, p. 54.

29) *Ibid.*, p. 60 and p. 66.

30) *Ibid.*, pp. 67-72.

31) *Ibid.*, p. 71.

32) *Ibid.*, p. 73.

...most of the Shakespearian passages quoted by Cunliffe...seems to me the merest coincidences. ...though Seneca loved ghosts and penny-dreadfulness, he had no monopoly in that. ...the spirit in *Henry VI* has nothing specifically Senecan about him: and to cry 'Seneca' every time the lights burn blue is preposterous.³³⁾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Lucas는 *Gismond of Salerne*을 낭만적인 이태리 로네상스 사랑이야기가 Seneca의 고전형식과 결합한 최초의 예라고 했고, *The Misfortunes of Arthur*는 'the most slavishly Senecan of all English plays'로서 Senecan ghost인 Gorlois로 시작되고 끝나며 Senecan stichomythia로 충만해 있다고 했다.³⁴⁾ 그는 *The Spanish Tragedy*도 Senecan chorus역을 하는 Andrea의 ghost와 Revenge를 갖고 있고 두번의 Seneca 원문 인용; 복수주제, Ixion, Tityus, Sisyphus, Rhadamanth 등이 'definitely Senecan'이라고 했으며, *Locrine*은 *The Spanish Tragedy*보다 'much more Senecan'이며, *Titus Andronicus* 또한 'more Senecan than ever'라고 했다.³⁵⁾ 그는 Cunliffe가 예시한 *Titus Andronicus*의 parallel passage들에 동의하며 특히 마지막 장면을 'Thyestean pie' 운운하며 Seneca의 영향이 의문시될 수 없다고 했다.³⁶⁾ 또 그는 *Titus Andronicus* 다음으로 Seneca에 가장 가까운 Shakespeare의 극은 *Richard III*이며, 그 다음은 *Macbeth*라면서 Cunliffe의 'industry'가 발전해 낸 parallel passage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³⁷⁾

Lucas는 'Of all the popular Elizabethans Seneca's greatest debtor is Marston, especially in the Two Parts of *Antonio and Mellida*'라는 말로 Marston이 어느 Elizabethan playwright보다 Seneca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했다.³⁸⁾ 그러나 이것은 Cunliffe가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에서 말한 'Of all the Elizabethan dramatists, MARSTON owed the most to Seneca'³⁹⁾와 'It is, however, in Marston's earlier tragedies, the two parts of *Antonio and Mellida*, that we find the influence of Seneca most plainly manifested'⁴⁰⁾를 그대로 재생시킨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Lucas는 Beaumont과 Fletcher, Massinger, Ford에도 Senecan trail을 추적할 수 있다면서 Seneca의 모방이 풍미했다는 증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But perhaps the most striking evidence of the pervasive imitation of Seneca...may be found by tracing the reappearance of some of his most quoted lines in playwright after playwright. For instance the one line

Per scelera semper sceleribus tutum est iter.

"The only path that's safe for crime is crime," (*Agam.* 115.) is, as Cunliffe shows, quoted in

33) F.L. Lucas, *Seneca and Elizabethan Tragedy*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22), p. 123.

34) *Ibid.*, pp. 101-102.

35) *Ibid.*, pp. 115-116.

36) *Ibid.*, p. 118.

37) *Ibid.*, pp. 120-122.

38) *Ibid.*, p. 123.

39) Cunliffe,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 p. 98.

40) *Ibid.*, p. 100.

Latin in the *Spanish Tragedy* and Marston's *Malcontent*, and more or less freely paraphrased in *Misfortunes of Arthur*, *Macbeth*, *Richard III*, *Catiline*, *The White Devil* and Massinger's *Duke of Milan*.⁴¹⁾

이 점은 Lucas도 솔직히 밝힌대로 Cunliffe가 이미 그보다 30년 전에 상론한 사항임(*The Influence*, pp. 24-25)을 상기할 때 Lucas의 논의는 Cunliffe를 표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의 'most of the Shakespearian passages quoted by Cunliffe...seems to me the merest coincidences....to cry 'Seneca' every time the lights burn blue is preposterous'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한 하나의 악담이요 중상이 아닐 수 없다.

Lucas는 Seneca의 극들에 대해서 본시 불만이 많다. 이들의 거짓 수사와 과장되고 딱딱한 경구들('the exasperatingly false rhetoric of the Senecan stage, with its far-fetched and frigid epigrams'⁴²⁾)이 못마땅했으며, Seneca의 'faults, his gross bad taste, his insincerity, his heartlessness and soullessness'⁴³⁾가 도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상에서 우리는 Lucas의 악담과 중상이 Cunliffe를 손상시킬 수 없었음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Cunliffe는 Eliot라는 지지자를 얻어 더욱 반석 위에 올라 앉게 된다. T.S. Eliot은 1927년에 Seneca 비극들과 Elizabethan tragedy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Seneca의 문체를 'false'와 'frigid'란 단어를 사용하여 매도한 Lucas와 같은 사람의 견해를 일축하고 그것을 응호했다. 하나는 Charles Whibley를 편집자로 하여 간행된 *The Tudor Translations Second Series*의 XI권과 XII권으로 나온 Thomas Newton의 *Seneca His Tenne Tragedies Translated into Englysh*의 reprint editon에 붙인 'Introduction'(XI, pp. v-liv)이요, 또 하나는 Shakespeare Association을 위해 발표된 'Shakespeare and the Stoicism of Seneca'이다. 이 두 논문은 그의 *Selected Essays*(1932)에 재수록되었는데 전자는 여기에서 'Seneca in Elizabethan Translation'이란 새 제목을 지니고 있다.

'Introduction'은 Seneca가 Elizabethan mind와 Elizabethan tragedy에 미친 영향이 어느 다른 작가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심오했다는 명쾌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

No author exercised a wider or deeper influence upon the Elizabethan mind or upon the Elizabethan form of tragedy than did Seneca.⁴⁴⁾

Eliot은 Renaissance 시대에 Seneca보다 더 높게 평가받은 Latin 작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Seneca보다 더 악평받는 Latin작가가 없다면서 Latin문학에 조예가 깊은 Mackail, Nisard, Butler, Lucas의 악평을 언급한다. Lucas의 경우에는 'the exasperatingly false rhetoric...and frigid epigrams'까지 인용하면서 Eliot은 문제의 악평들은 편견과 오해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Seneca의 비극이 single speaker가 private declamation을 할 수 있도록 쓰여져서 그것의 'horrors'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구실을 하여 문제될 수 없으

41) Lucas, pp. 131-132.

42) *Ibid.*, p. 55.

43) *Ibid.*, p. 72.

44) T.S. Eliot, 'Introduction,' *Seneca His Tenne Tragedies Translated into English* ed. Thomas New ton Anno 1581 in *The Tudor Translations Second Series XI* ed Charles Whibley (London: Constable and Co., 1927), p. v.

며, verse(bombast)와 characterization의 결합, decadence의 문제는 모두 Seneca 자신의 것이라기 보다는 ‘merely Roman and (in the narrower sense) Latin’이요, Latin의 ‘peculiarities’로 생각함이 마땅하다고 했다.⁴⁵⁾ 뿐만 아니라 Seneca 비극들의 declamatory purpose가 갖는 한계를 감안하면 Seneca는 종종 ‘magnificent effects’를 얻고 있는다는 것이다.⁴⁶⁾

Eliot은 *The Spanish Tragedy*를 Seneca의 영향을 받은 대중극 중에서 ‘the most significant popular play’라고 규정하면서 저자 Kyd는 Seneca로방극인 Garnier의 *Cornelia*까지 번역한 것으로 보아 ‘the disciple of Seneca’임이 틀림없다고 했다.⁴⁷⁾

Eliot은 Cunliffe에 대한 Lucas의 비판도 비판한다. 그는 Lucas가 Cunliffe에 의해 제시된 Seneca로부터의 ‘borrowings’에 대해 점차 회의적이 된다는 대목을 인용한 후 자신으로서는 ‘We have (in *King Lear*) Seneca’s hopeless fatalism...’라고 한 Cunliffe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Cunliffe쪽에 선다.⁴⁸⁾ Seneca가 Stoicism면에서 Elizabethan dramatist들에게 미친 영향은 ‘Shakespeare and the Stoicism of Seneca’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Eliot은 Shakespeare가 Seneca의 산문은 아니나 비극은 학교에서 일부 읽었고 Kyd를 통해 Seneca유의 비극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Shakespeare의 일부 대비극에 들어있는 새로운 태도는 Seneca의 태도는 아니라고 해도 Seneca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했다.⁴⁹⁾ 또 그는 Medea가 ‘*Medea superest*’라고 한 Seneca의 극대사가 없었다면 Shakespeare의 Antony가 ‘I am Antony still’이라고, Webster의 Duchess가 ‘I am Duchess of Malfy still’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느냐고 했다.⁵⁰⁾

이상과 같이 Eliot은 두 가지 글을 통해서 시인과 비평가를 겸한 문인다움에 아직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언어분석적 접근법을 통하여, 국의 형식과 사상을 통한 접근법으로 Seneca의 영향을, 그때까지 나온 주요한 ‘영향’ 연구들을 적절히 평가정리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으로 홀륭하게 논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Eliot은 Lucas와 같은 detractor들로부터 Cunliffe와 그가 대변하는 ‘influence’연구를 옹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IV

1893년에 Cunliffe가 탄탄대로에 올려 놓고 Schelling, Watt, Eliot 등 수 많은 비평가들의 지지로 반석 위에 선 Seneca영향연구는 1930년대,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이 문제의 anti-Senecan champion은 Howard Baker이다.

물론 Baker의 출현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William Farnham은 ‘The Progeny of A Mirror for Magistrates’(1932)와 *The Medieval of Elizabethan Tragedy*(1936)에서 Senecan critic들이 제시한 Seneca영향의 증거들은 중세로부터 내려 오고 있는 영국고유의 요소들에 불과함을 주장했으며, S.A. Small은 ‘The Influence of Seneca’(1935)에서 Gor-

45) *Ibid.*, pp. vii-xvi.

46) *Ibid.*, pp. xv-xvi.

47) *Ibid.*, p. xxiv.

48) *Ibid.*, p. xliv.

49) T.S. Eliot, ‘Shakespeare and the Stoicism of Seneca’, *The Shakespeare Association Publications* No. 13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pp. 6-7.

50) *Ibid.*, p. 10.

*boduc*과 Seneca비극들과의 차이점을 무수히 지적하면서 전자는 후자의 영향이 아니라 English chronicle plays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또 Theodore Spencer는 *Death and Elizabethan Tragedy: A Study of Convention and Opinion in the Elizabethan Drama*(1936)에서 Seneca의 영향은 극 기법에 좀 있었을뿐 언어와 사상에는 미미했음을 논했다. 이들에 의해 크게 고무된 Baker는 'Ghosts and Guides: Kyd's Spanish Tragedy and the Medieval Tragedy'(1935)와 *Induction to Tragedy: A Study in a Development of Form in 'Gorboduc'*, 'The Spanish Tragedy' and 'Titus Andronicus'(1939)를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그는 *Gorboduc*, *The Spanish Tragedy*, *Titus Andronicus*를 'non-Senecan'으로 논하면서 Cunliffe와 그의 추종자들을 맹공하였다. 이들도 이미 1910년 전후해서 native element나 medieval tradition에 대해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일언반구도 없이 고유전통을 극대화하고 강조함으로써의 Seneca 영향을 극소화하였다.

Baker는 'Ghosts and Guides: Kyd's Spanish Tragedy and the Medieval Tragedy'에서 *The Spanish Tragedy*의 특색인 피의 비극, 몸서리나는 수사(rhetoric), 복수주제, 혼령이 Seneca에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는 Andrea의 혼령과 그의 알레고리적 동반자인 Revenge를 Seneca 인물 유형으로 본 Symonds, Cunliffe, Boas, Lucas, Eliot의 의견을 모조리 일축한다. 이와 같은 Baker의 주장이 Symonds의 'the Ghost, imported from Seneca into English tragedy, had a long and brilliant career'와 Cunliffe의 'Seneca bestowed upon English tragedy other stock characters...But the most important inheritance of English tragedy in this respect was the Ghost'를 상기할 때 얼마나 큰 반론이며 도전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Baker의 주된 자료는 *The Mirror for Magistrates*로서 *The Spanish Tragedy*의 source는 중세와 Renaissance 영국의 metrical tragedies이며⁵¹⁾, 그는 medieval native tradition으로 강변할 수 없는 것은 Seneca 이외의 고전작가에 기인한 것으로('the Virgilian rather than the Senecan element')⁵²⁾ 돌린다.

이상과 같은 Baker의 주장은 *Induction to Tragedy*에서 *Gorboduc*과 *Titus Andronicus*에 까지 확대되고 극단화되어 반론을 위한 반론이란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을 Cunliffe를 정점으로 한 Seneca영향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소위 'Senecan' critic들과 맞서는 'un-Senecan' 혹은 'anti-Senecan' critic들의 총수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Induction to Tragedy*가 Cunliffe의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를 주된 공격목표로 삼고 그것의 지주들을 훈들여 무너뜨리려 함은 처음부터 명백히 들어나고 있다.

The theory that Seneca was the eminent influence on sixteenth century writers of tragedy is, I think, a blighting critical fiction. It rests...on an entirely unjustified extension of the many egregious distortions in John W. Cunliffe's dissertation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 therefore I have used this work as the center for my discussion of Seneca in the

51) Howard Baker, 'Ghosts and Guides: Kyd's Spanish Tragedy and the Medieval Tragedy', *MP*, Vol. XXXIII, No. 1 (August 1935), p. 28.

52) *Ibid.*, p. 29.

following chapters.⁵³⁾

Baker는 *Gorboduc*을 political morality play와 같은 것으로서 신하들의 충언을 경청하여 현명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국가의 파멸을 초래한다는 그것의 주제가 John Lydgate(*The Fall of Princes*, 1431~1438)에서 *A Mirror for Magistrates*(1559)에 이르는 주된 metrical tragedies의 일반적인 교훈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킨다.⁵⁴⁾ 그는 Schmidt가 처음 지적한 ‘hand’, ‘heart’ 등의 Senecan vocabulary(3막, Chorus, 3-16; 4.2, 136; 4.2, 169-70 등)에 대해서는 시편 106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Biblical vocabulary라고 해야 옳다고 했다. 더욱이 *Gorboduc*의 divine vengeance는 초기 ‘tragical’ literature와 *Mirror for Magistrates*에 다량으로 들어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Senecan Nemesis와는 다른 것임을 예증한다.⁵⁵⁾ 또 그는 *Gorboduc*의 마지막 대사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 극의 참된 morality는 Senecan morality의 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aker는 *Gorboduc*의 form도 Seneca의 비극과는 관계없으며, 5막 구조도 classical comedies에서 유래했다고 했다. 중심인물들이 선과 악의 쟁탈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도덕극의 요소이며, 긴 monologue들도 Seneca식이라기 보다는 도덕극과 metrical tragedies의 기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Baker는 *Gorboduc* ‘a diversity of elements’로 구성된 극이지만 Senecan element는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⁵⁶⁾

그러면 끝으로 Baker의 *Titus Andronicus*논을 살펴보자. 그는 Seneca의 *Thyestes*와 Atreus의 ‘horrible banquet’가 ‘tragedies of atrocious vengeance like *Titus Andronicus*’로 이끌었다는 Legouis와 Cazamian의 「영문학사」에서의 말은 ‘erroneous’한 것이며 이와 같은 ‘the distortions, the misleading implications’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다.⁵⁷⁾ 그는 이 ‘왜곡들과 오도적 함축들’의 근원은 Cunliffe의 ‘Thyestean banquet’이며, Cunliffe가 banquet incident의 참다운 출전인 Ovid의 *Metamorphoses*(BK VI)와 18세기의 유명한 Shakespeare editor들인 Steevens와 Malone이 이미 소개한 Ovid에 대한 ‘elaborate cross references’를 생략한 것(omission)을 ‘bewildering’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Baker는 *Titus Andronicus*와 관련하여 *Thyestes*를 언급하는 그 자체가 ‘distortion’이라면서 그 이유로 강간당하고 혀와 두 팔을 절단당한 여인이 복수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이야기는 Ovid에만 있으며, Elizabeth시대인들은 Seneca의 비극을 통해서 보다는 Gower, Chaucer, Pettie, Gascoigne, Golding 영역의 *Metamorphoses*를 통해 이에 훨씬 더 친숙해 있었음을 들었다.⁵⁸⁾

여기서 우리는 Baker 자신도 그보다 3년 전에 G.L. Kittredge가 그의 *Complete Works of*

53) Howard Baker, *Induction to Tragedy: A Study in a Development of Form in 'Gorboduc', The Spanish Tragedy' and 'Titus Andronicus'* (Louisian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39), p. 5.

54) *Ibid.*, pp. 10-20.

55) *Ibid.*, pp. 30-34.

56) *Ibid.*, p. 40. 5막 구조가 un-Senecan이란 것은 후에 T.W. Baldwin의 *Shakespeare's Five-Act Structure* (Urbana, 1947) (p. 119와 p. 347)에서 Terence의 영향이란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Baker는 강력한 지지자를 얻음.

57) *Ibid.*, p. 120.

58) *Ibid.*, pp. 121-122.

Shakespeare(1936, pp. 971-972)에서 *Titus Andronicus*는 Thyestean banquet와 Philomel의 강간이란 Ovidian theme의 교묘한 배합('skilfully fused')으로 이루어졌다고 한 매우 의의있는 발언을 생략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본다.

어쨌든 Baker는 Philomel story 이외에도 *Titus Andronicus*의 중세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Revenge, Murder, Rape 등과 같은 추상인 물 이용은 중세 시인들의 수법이며, madness는 Gower가 세운 전통이며, Titus의 양광도 Ovid, Gascoigne이 이미 사용한 것이며, 표현양상, 고통을 표현할 때 Titus가 쓰는 은유는 바로 Hieronimo가 사용한 'metaphysical journey of a troubled spirit'라는 것이다.⁵⁹⁾

*Induction to Tragedy*의 'Ⅲ장 Part Ⅱ의 3'은 Cunliffe에 대한 집중적인 논박이다. Baker는 Cunliffe가 지적한 바 있는 *Thyestes*와 *Titus Andronicus*의 유사성⁶⁰⁾과 *Hippolytus*와 *Titus Andronicus*의 관련성⁶¹⁾을 부인하고 각각 Ovid와 Virgil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그는 *Titus Andronicus*에 들어있는 classical allusion을 분석한 결과 Ovid의 것이 16개, Virgil의 것이 15개, Livy-Painter의 것이 4개, Horace와 Seneca의 것이 각각 2개, 기타 Homer, Sophocles, Euripides, Herodotus(혹은 Plutarch)의 것이 한, 두개씩이라면서 전형적인 'tragedy of blood'에 미친 Seneca의 영향 혹은 'proportionate importance'가 얼마나 미미한 가를 통계적으로 시위하고 있다.⁶²⁾

Baker는 Eliot에도 반론을 제기하면서 Elizabethan tragedy의 주인공들이 사망직전에 자기분석적 고별대사에서 Seneca의 정신에 젖어 있다고 한 점과 '*Medea superest*'와 관련해서 한 Eliot의 말을 지적하며 Eliot의 입장은 'badly grounded'된 것이고 실은 이는 Seneca가 아니라 narrative tragedy에서 전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⁶³⁾

이상에서 우리는 Baker의 논지가 그 자신이 상대방의 결점으로 규정하고 지적한 바로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Gorboduc*, *The Spanish Tragedy*, *Titus Andronicus*를 un-Seneca국으로 강변한 것을 엿본다. 그런데 Baker에게 가장 큰 난관이 된 것의 하나는 Seneca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동시대 증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Cunliffe의 omission을 그처럼 소리높혀 규탄한 마당에 이 엄청난 무게의 증언들을 그는 묵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불성실하게 이것들을 풀이 함으로써 자신에게 큰 손상을 입혔다.

Baker는 Sidney가 *Gorboduc*의 style이 Seneca의 것과 비슷하다고 한 평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고 간단히 처리해 버린다.

Sir Philip Sidney's comparison of the style of *Gorboduc* with Seneca's style is not to be taken too seriously in view of the notorious Elizabethan weakness for showy comparisons.⁶⁴⁾

Sidney의 말은 진지하게 칠 것이 못된다는 Baker의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물론 Sidney가 'showy comparison'을 하는 좋지 못한 습성을 지닌 엘리자베스시대 사람의 하나라는 그

59) *Ibid.*, pp. 122-123.

60) *Ibid.*, pp. 130-132.

61) *Ibid.*, p. 134.

62) *Ibid.*, p. 139.

63) *Ibid.*, p. 177.

64) *Ibid.*, p. 196.

의 시사에는 반발까지 하게 됨을 억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Baker는 앞서 우리가 인용한 바 있는 Nashe의 ‘English Seneca read by candle light yeeldes manie good sentences, as Bloud is a begger, and so foorth’를 ‘bewildering’⁶⁵⁾ 한 것이라고 난처해 하면서 아마도 영원히 올바른 풀이를 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모호한 대목이라고 했다(‘defy assured interpretation’).⁶⁶⁾ 결국 그는 Nashe의 말이 Elizabethan tragedy 가 Seneca의 자구들을 빌려 썼다는 뜻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이 Seneca의 영향을 인정 한 것은 아니라고 석연치 못한 말을 한다. 문제의 Nashe의 말은 19세기 말엽부터 한동안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은 것은 사실이나 Baker의 풀이는 너무나 균형을 잃은, 사실을 회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

Baker의 *Induction to Tragedy*로 un-Senecan criticism이 구축되어 Cunliffe가 대변하는 Senecan criticism과 그후 30여년 간 대립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Baker의 극단론이 지지자들을 즉각 탄생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반론이 나오고 Senecan critic들이 다수 나타났다. Hardin Craig, F.T. Bowers, C.W. Mendell, F.R. Johnson 등은 Cunliffe의 결론들을 거의 의문없이 받아들이는 Senecan criticism을 했으며⁶⁷⁾, 뿐만 아니라 1921년에 나왔던 H.B. Charlton의 *The Senecan Tradition in Renaissance Tragedy*가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색인만 추가되어 1946년에 단행본으로 나온 것은 Cunliffe의 Senecan criticism과 그 방법론이 의연 전제함을 상정적으로 보여 준다.

Craig는 *Gorboduc*와 *The Misfortunes of Arthur*와 기타 초기 Elizabethan tragedy를 그리고 Marston과 Chapman이 직접 Seneca를 차용한 것은 Cunliffe와 Lucas가 제시한 증거가 말해주듯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Shakespeare도 각종 소재를 다룰 때에 Senecan pattern을 따른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⁶⁸⁾ Bowers는 Elizabeth시대인들은 Seneca의 rhetoric 을 좋아했고, 그의 bombast와 flamboyance에 인상을 받았고, 그의 introspection은 national trait가 되기 까지 했음을 언급했으며⁶⁹⁾, *The Spanish Tragedy*의 극형식에 Seneca가 한 가장 각별한 기여는 ghost라고 했으며⁷⁰⁾, *The Misfortunes of Arthur*를 ‘an attempt at pure Seneca in English’라고 한다면 *The Battle of Alcazar*와 *Locrine*은 ‘Seneca made palatable for the popular stage’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⁷¹⁾ 또 그는 Cunliffe와 Eliot 이 이미 언급한 바대로 Marston을 Seneca의 영향을 가장 크게 입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 규

65) *Ibid.*, p. 197.

66) *Ibid.*

67) Hardin Craig, ‘Shakespeare and the History Play’, *PQ*, Vol. XIX, No. 1 (January 1940), 1-19; F.T. Bowers, *Elizabethan Revenge Tragedy 1587~164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0); C.W. Mendell, *Our Sene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41); Francis R. Johnson, ‘Shakespearian Imagery and Senecan Imitation’ in *Joseph Quincy Adams: Memorial Studies* ed. James M. McManaway, Giles E. Dawson, and E.E. Willoughby (Washington D.C.: The Folger Library, 1948), pp. 33-53.

68) Craig, p. 5.

69) Bowers, p. 74.

70) *Ibid.*

71) *Ibid.*, p. 104.

정했다.⁷²⁾ Mendell은 Seneca가 영국의 초기 비극에 미친 영향은 Cunliffe와 C.F.T. Brooke의 저서에 의해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것이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없다고 했다.⁷³⁾ 그는 마지막 장 ‘결론’에서도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⁷⁴⁾ Mendell은 Baker와는 달리 그러나 Symonds와 Cunliffe처럼 ghost와 같은 초자연적 요소를 Elizabethan drama가 Sencea에서 물려받은 큰 유산으로 보았으며⁷⁵⁾, Shakespeare의 작품 중에서는 *Macbeth*가 Sencea 없이 태어나기 불가능했을 정도로 opening scene, Banquo의 ghost, Macduff의 아들 살해, 방백의 사용 등 많은 Seneca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⁷⁶⁾

Johnson은 그때까지의 Seneca 영향연구에 대한 정리를 결들이면서 Shakespeare를 Seneca의 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극작가로 강력하게 주장한 Senecan critic이다. 문제는 Shakespeare가 source material을 변모시키는데 천재성을 빌휘함으로써 그의 imagery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다른 동시대극작가들에서처럼 용이하게 Seneca의 영향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⁷⁷⁾

Johnson이 Cunliffe와 같은 여러 Senecan critic들이 제시한 것과 같은 parallel passage들을 재분석, 재검토한 후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These facts so strengthen the evidence for the lines in *Macbeth* being the result of Shakespeare's imagination transmuting the baser metal of Seneca that no room is left, it seems to me, for a reasonable doubt.⁷⁸⁾

이와 같은 parallel passage들을 재분석 함으로써 내린 Johnson의 결론은 비록 Shakespeare 한 작가에 국한된 흡이 있기는 하지만 Lucas가 Cunliffe의 증거들을 ‘the merest coincidences’라고 몰아부친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써 Cunliffe의 연구의 권위를 크게 상승시켰다.

한편 Baker의 *Induction to Tragedy*가 즉각적인 지지자들을 향유하지는 못했으나 Seneca의 영향문제를 재평가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 재평가가는 극단이 극단을 부르고 계속 팽팽한 평행선을 긋는 양 진영을 화해시키려는 중간노선을 탄생시켰다.

E.M.W. Tillyard는 *Titus Andronicus*의 classical tradition을 Senecan으로 본 Cunliffe와 Ovidian으로만 본 Baker를 ‘there is just as much Ovid in the play as there is Seneca’⁷⁹⁾ 란 말로 타협하고 Lavinia강간과 사지절단은 Procne와 Philomela에 관한 Ovid의 이 이야기에서 있고 Tamora가 아들의 살로 요리된 음식을 모르고 먹는 이야기는 Seneca의 *Thyestes*에 완다고 부연했다.

72) *Ibid.*, p. 124.

73) Mendell, p. vii.

74) *Ibid.*, p. 189.

75) *Ibid.*, p. 144.

76) *Ibid.*, pp. 198-199.

77) Johnson, pp. 40-41.

78) *Ibid.*, p. 47.

79) E.M.W. Tillyard, *Shakespeare's History Plays* (1944) (London: Chatto & Windus, 1961), p. 137. J.C. Maxwell도 후에 *Titus Andronicus*가 Seneca와 Ovid의 요소를 다 지니고 있음을 주장함. The Arden Shakespeare: *Titus Andronicus* (London: Methuen and Co. Ltd., 1953), pp. xxxviii-xxxix 참조.

Marvin T. Herrick은 Seneca의 영향을 부정한 Baker의 argument 하나 하나를 수긍하면 서도 *Gorboduc*에 나타난 Seneca의 영향의 중요성을 불신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평하고 그 이유는 native tradition들의 중요성에 동의한다고 해서 Baker처럼 Seneca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 이유는 양 영향이 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⁸⁰⁾ 한편 Herrick은 *Gorboduc*을 Senecan으로만 보는 비평가들에 대해 Baker의 도전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적어도 사안을 재검토하게 하는 공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그는 영희곡의 고전적 배경이 'complex'이며, 'pure Seneca'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서 Schmidt, Cunliffe, Watt 등의 증거들을 테스트하여 Senecan influence 외에 *Gorboduc*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classical, medieval, and contemporary' influence들을 가려보고 있다.

*Gorboduc*의 (고전적) 배경이 복합적('complex')이라는 Herrick의 설명 한, 두 개를 듣다. 1막 서두에 나오는 한묶음의 막대기 이야기로 구성된 dumb show는 classical이 아니고 Italian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은 Aesop의 우화라면서 그는 이 우화를 비극적으로 풀이한 것은 *Fall of Princes*의 Thebes 이야기에 대한 Lydgate의 결론에서 였으며, Lydgate를 잘 알고 있던 *Gorboduc*의 저자들이 Lydgate가 *Thebais, Thyestes* 등 Seneca 비극들을 언급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Seneca의 *Thebais*는 분열된 왕국의 비극에 대한 극적 source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⁸¹⁾ 또 그는 왕비 Videna는 1막을 여는 대사에서 정적의 밤이 'wearie day'의 고심들을 일단 정지시켜 주지만 'carefull thoughtes'를 연장시킬 뿐 이어서 'slowe Aurore'를 책망하게 된다는 하소연을 하는 대목을 예로 든다. 그는 이 대사가 Schmidt와 Watt가 지적한대로 Octavia의 opening lines와 'fairly close'한 것이며, Ovid가 비슷한 상황의 Aurora를 묘사한 것을 상기시킨다. 이 밖에도 Lydgate의 *Troy Book*과 Virgil의 *Aeneid*도 관계되었을 것이라면서 Herrick은 Videna의 대사의 source는 Virgil, Ovid, Seneca, Lydgate의 복합으로 보고 있다.⁸²⁾ 요컨대, Herrick은 *Gorboduc*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데는 Baker와 동의하나 철두철미 Seneca의 영향을 배제한 그의 복합적인 영향론에는 반대한다. 그는 Seneca가 *Gorboduc*의 복합적 source의 하나일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하나로 믿기 때문이다.

To recapitulate, I believe that the predominant classical influence in *Gorboduc* is Senecan. But the literary background of the English tragedy, as any careful student of Elizabethan drama might suspect, is complex; it is classical, medieval, and contemporary.⁸³⁾

H.W. Wells의 'Senecan Influence on Elizabethan Tragedy: A Re-Estimation'(1944)도 Baker의 *Induction to Tragedy*가 조성한 Seneca 영향의 재검토란 분위기에 의해 생산된 것 이 분명하다. Wells는 해결된 것으로 보였던 Seneca의 영향 연구에 관해 두개의 상충되는 편협적이고 극단적인 견해('somewhat narrow and extreme points of view')가 제시된 것

80) Marvin T. Herrick, 'Senecan Influence in *Gorboduc*' in *Studies in Speech and Drama in Honour of Alexander M. Drumond* ed. D.C. Bryant, B. Hewitt, K.R. Wallace, H.A. Wickeln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44), p. 79.

81) *Ibid.*, pp. 80-81.

82) *Ibid.*, pp. 81-82.

83) *Ibid.*, p. 98.

은 'sympathetic study'를 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Cunliffe, Eliot, Mendell과 Farnham, Baker가 각각 대변하는 양 진영의 관점의 골자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Baker의 case가 'the more pregnable'하다고 함으로써 Cunliffe쪽에 치우친 중도파임을 보여 주고 있다.

Wells는 양 진영이 모두 Seneca의 장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면서 기실 Seneca는 각계각층의 Elizabeth시대인들에게 'tragedy in its highest perfection'을 대변했으며⁸⁴⁾, 그들에 대한 Seneca의 매력은 Seneca의 'feeling, thinking and poetic style'이며⁸⁵⁾, 그의 비극들에 들어있는 political trend(혹은 thought), 그가 Elizabethan mind에 심어 준 새로운 individualism이라고⁸⁶⁾ 주장한다.

Wells는 편견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the broader perspective'를 가져야 한다면서 양 진영의 결점을 지적한다. native traditions의 존재로 인해서 Seneca가 영국희곡의 발전에 필수적이 아니었다는, 바꾸어 말하면 English tragedy가 Senecan tragedy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는 Farnham과 Baker의 말은 'probably right'일지 모르나 그렇다고 Seneca가 Elizabethan tragedy를 풍부하게 만든 중요성을 도외시함은 Seneca를 이것의 핵심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임을 그는 강조한다. 한편 *Hamlet*을 Seneca의 영향의 절정으로 보는 Wells는 early English plays에 대한 Seneca영향을 강조한 Cunliffe에게 왜곡의 책임을 묻고 Seneca의 'deepest influence'는 1599년부터 약 10년간 Shakespeare, Marston, Chapman, Jonson, Webster에게 발휘되었다고 주장한다.⁸⁷⁾

M.C. Bradbrook는 *Themes and Conventions of Elizabethan Tragedy*(1935)에서 *Titus Andronicus*를 'a Senecal exercise'로, 그것의 tone을 'cool and cultured in its effect'로 평가했다.⁸⁸⁾ 이보다 조금 앞에서 Bradbrook는 Cunliffe의 Seneca영향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표했다.⁸⁹⁾ 그러나 그후 그녀는 Baker의 주장에 영향을 받고 종전의 태도를 바꾸게 된다. *Shakespeare and Elizabethan Poetry*(1951)에서 그녀는 early Elizabethan tragedy가 non-dramatic 'Complaint'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Titus Andronicus*를 하나의 dramatic lament로 봄으로써 Baker의 의견과 근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subject가 Ovid의 *Metamorphoses*에서 왔으며 이것의 source가 Senecan이란 설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까지 말했다.⁹⁰⁾ 이 대목에 단 주석에서 그녀는 Baker의 *Induction to Tragedy*가 Shakespeare의 초기극인 Sackville과 Kyd에 갖는 관계에 대한 'an excellent survey'라고 호평하고 이 논저의 영감이 되었던 Farnham의 *The Medieval Heritage of Elizabethan Tragedy*도 언급했다.⁹¹⁾

84) Henry W. Wells, 'Senecan Influence on Elizabethan Tragedy: A Re-Estimation', *The Shakespeare Bulletin*, Vol. XIX, No. 2 (April, 1944), p. 75.

85) *Ibid.*, p. 76.

86) *Ibid.*, p. 78.

87) *Ibid.*, pp. 81-83.

88) M.C. Bradbrook, *Themes & Conventions of Elizabethan Tragedy*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35), pp. 98-99.

89) *Ibid.*, pp. 88-89.

90) M.C. Bradbrook, *Shakespeare and Elizabethan Poetry: A Study of his Earlier Work in Relation to the Poetry of the Time* (London: Chatto and Windus, 1951), p. 104.

91) *Ibid.*, p. 257.

VI

Baker의 *Induction to Tragedy*는 거의 10년 후에 Peter Ure의 ‘On Some Differences between Senecan and Elizabethan Tragedy’(1948)에서 비로소 최초의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된다. Ure와 Baker의 관계는 Watt와 Cunliffe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Ure는 Cunliffe의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가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으며(‘its day is now apparently past’), ‘Seneca in Elizabethan Translation’에서의 Eliot의 결론들은 최근의 재검토에서 유지될 수 없었다는 선언으로 그의 논문을 시작하고 있다.⁹²⁾

Ure는 초기 Elizabethan tragedies와 중세와 16세기의 verse tragedy 및 morality play들에서 native tradition의 연속성을 발견하면서 ‘Senecan’비평가들이 내세운 classical tragedy의 특징들의 많은 것이 실은 정상적인 중세전통의 발전형태에 불과하며, Cunliffe, Watt 등이 무수히 제시한 Seneca와의 verbal parallel들은 결코 ‘convincing’한 적이 없었다고 일괄적으로 매도했다. 한편 그는 Baker가 Seneca의 영향문제를 재검토한 결과 Seneca영향 대신에 Lydgate에서 *Mirror for Magistrates*에 이르는 tragic idea의 연속성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밝혔다면서 5막 구조가 Seneca가 아니라 Terence에서 왔다는 Baker의 선견지명은 Baldwin의 *Shakespeare's Five-Act Structure*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했다.⁹³⁾ 그는 설사 고전의 영향을 보이는 경우에도 Seneca와는 무관한 일반화된 고전 일반의 요소들이므로 Seneca의 영향은 어느 의미에서나 깊지도 광범위한(‘far-reaching’) 것도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The forms of the Elizabethan drama were native—or, at the least, medieval—forms heavily modified by Renaissance classicism.⁹⁴⁾

Ure의 논문은 Baker 등의 anti-Senecan 비평의 입장에 무조건적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Baker가 Elizabethan tragedy의 native element를 제시하고 그것에 힘입어 적수를 논박하면서도 Cunliffe, Watt 등이 이미 오래 전에 이를 언급한 사실을 전적으로 무시했듯이 Ure도 Baker의 잘못을 정정한 Herrick의 균형잡힌 논문 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Baker는 1960년대 말엽에 가서 또 한 사람의 강력한 지지자를 얻는다. G.K. Hunter는 “*Seneca and the Elizabethans: A Case-Study in ‘Influence’*”(1967)에서 Ure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Senecan’비평을 공격하고 있다. Ure와 Hunter는 말하자면 Watt와 Eliot가 Cunliffe에 대해 갖는 것과 같은 관계를 Baker에게 갖는다. Hunter는 한 걸음 더 나가 단순히 Baker의 지지자로 머물지 않고 그로부터 ‘anti-Senecan’비평의 바톤을 넘겨 받아 새로운 챔피언이 된다.

Hunter는 Baker의 *Induction to Tragedy*와 Ure의 ‘On Some Differences between Seneca and Elizabethan Tragedy’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매장했음에도 불구하고 Cunliffe의 *The Influence of Seneca on Elizabethan Tragedy*가 1965년에 출판되고 1966년에는 E.F. Watling

92) Peter Ure, ‘On Some Differences between Seneca and Elizabethan Tragedy’, *The Durham University Journal*, Vol. XLI, No. 1 (NS, Vol. X, No. 1) (December 1946), p. 17.

93) *Ibid.*, n.

94) *Ibid.*, p. 18.

이 Seneca의 5개 극을 영역하여 Penguin Edition을 내면서 ‘Introduction’에서 Cunliffe의 가정들을 마치 ‘undisputed truth’의 것들인양 재천명한데 격분하여 문제의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Hunter에 의하면 Cunliffe가 사용한 영향연구의 방법론은 옛날의 어수록한 때에나 통용되었지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Cunliffe가 총점을 맞추고 있는 군소극들인 *The Misfortune of Arthur*, *Gismond of Salerne*, *Richardus Tertius*에 들어맞을지는 몰라도 Baker가 질책한대로 *The Spanish Tragedy*에는 ‘shaky’라고 Marlowe와 Shakespeare에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고 단언한다.⁹⁵⁾ 그는 Cunliffe가 *Damon and Pithias*, *Horestes*, *Cambyses* 등 영국비극에 흐르고 있는 ‘an alternative line of tragic writing’, Seneca의 영향 이외의 것(‘Something else’)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그의 논문이 점차 사라져가는 원인이라고 했다.⁹⁶⁾

Hunter는 *influence*의 어원이 ‘single link’가 아니라 ‘a stream of tendency raining down upon its object’를 시사한다고 동시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다른 경쟁적인 영향들(‘the other competing influences that were raining down at the same time’)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로소 Elizabethan tragedy에 미친 Seneca의 영향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문제의 영향연구를 위해서는 1560년대와 1590년대 사이의 영국극작가들이 숨쉰 공기 전체의 성격, 곧 ‘the literary, historical, artistic scenery of these years’를 아는 것이 이상적이며, 적어도 ‘개인대 개인’ 유형의 영향연구란 절름발이의 단순성은 보다 넓은 시야의 교차적 조류들과 복합성(‘the cross-currents and complexities of a larger view’)에 의해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⁷⁾ 당시 비극과 그외의 장르들과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았던 점도 Cunliffe의 것보다는 더 넓은 안목과 관점에서 고전의 유산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도 했다.

Hunter는 Scaliger, Chaucer, Hubbard에 미친 Ovid의 영향을 들며 Ovi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lizabeth시대의 주요 대중극인 *The Spanish Tragedy*와 *Titus Andronicus*도 소재와 방식에서 모두 Ovidian으로 규정한다.

...Kyd's *Spanish Tragedy* and Shakespeare's *Titus Andronicus*...draw heavily on Ovid for both matter and manner. *Titus Andronicus*...is a mainly Ovidian piece; as Baker has pointed out, only a determination to find Seneca in every woodpile could have suppressed the Philomela story in order to reveal *Thyestes* as the source.⁹⁸⁾

이 말은 무조건 Seneca의 영향을 배제한 Baker를 연상시키는 극단론이다. 우리는 Ovid가 Seneca의 애호작가였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Seneca에 미쳤을 Ovid의 영향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Elizabethan drama 속에서 발견되는 양자에 공통적인 요소마다 Ovidian이고 un-Senecan이라고 할 수는 없다. Hunter 자신도 ‘Modes of rhetoric and subject matter

95) G.K. Hunter, ‘Seneca and the Elizabethans: A Case-Study in “Influences,”’ *ShS* 20 (1967), p. 17.

96) *Ibid.*, pp. 17-18.

97) *Ibid.*, p. 18.

98) *Ibid.*, p. 20.

are often so similar in the two poets that it is difficult to separate them as models'라고 타당한 말을 하면서도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면 Ovid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적인 억지를 부린다.⁹⁹⁾ 물론 Hunter는 그 나름으로 이유를 제시한다. Ovid는 Seneca와는 달리 학교에서 다량 읽히고, 끝없이 번역되었으며, 예술에서 인용되고 모방되는 등 당시 도처에 존재한데 반하여 Seneca비극은 각 작품이 오직 한번씩 번역되었고 그것의 완역본 역시 일회 출간에 그쳤음은 물론 기독교인들이 당시 영국인들이 Seneca의 'resolute sense of divine malevolence'를 지지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¹⁰⁰⁾ 이 논리 역시 Seneca의 비극이 번역된 일도 없다든가, 모방이나 인용된 일이 전혀 없었다든가, 또 학교에서 전혀 교수되거나 공연된 적이 없었을 경우에 오직 그것도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Seneca의 Stoicism이 기독교의 도덕이나 윤리와 상통하는 데가 있어서 초기 기독교 교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Seneca와 St. Paul이 동시대인으로서 서로 교통했다는 주장이 빈번한 것을 감안할 때 Hunter의 이유는 평형에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Hunter의 극단론은 계속되어 5막구조, chorus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들도 Senecan이 아닌 것이 밝혀져 광범위했던 Seneca영향의 제국은 몇개 진부한 유사 대목들과 stichomythia와 같은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몇개 trick으로 대폭 축소되었다고 했다. stichomythia도 따지고 보면 Wakefield Cycle의 *Mactatio Abel*에서 보듯이 classical model과는 관계없이 존재한 영국희곡의 고유전통이라고 했다.¹⁰¹⁾ horror 또한 성도들의 생사를 다룬 St. Catherine(자신의 혀를 물어 뜯어 냄), St. James(사지를 절단당함), St. Erasmus(창자를 끄집어 내는 일을 당함)의 이야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다.¹⁰²⁾ 따라서 Seneca의 'occasional sententiae'를 제외하면 Elizabethan play들은 miracle plays와 interludes로 대변되는 영국의 고유전통의 소산이며, 자연 Shakespeare 극들의 'foundations'도 classical tragedy가 아닌 *The Famous Victories of Henry V*, *The Chronicle History of King Leir*, *The Troublesome Raigne of King John*이라는 단점이다.¹⁰³⁾ Hunter는 *Antonio and Mellida* 극들에 들어 있는 많은 Seneca 원문인용도 극적 맥락과는 아무런 연관성 없이 오직 장식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¹⁰⁴⁾ 우리는 Baker가 Seneca영향에 대한 동시대 증언들을 일종의 퀘변으로 처리했듯이 Hunter도 Elizabeth시대 극작품들에 들어 있는 Seneca비극들로부터의 원문인용을 처리하고 있음에 유의하게 된다.

VII

Ure와 Hunter가 Baker를 옹호하고 Cunliffe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극단론을 다 동원했으나 'Senecan'비평은 더욱 변창하게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Baker의 극단론이 나온 직후에 나타난 현상처럼 중간노선을 걸는 비평가들이 다수 등장한다.

Ure의 논문이 나온 바로 그 다음 해에 Gilbert Highet는 Shakespeare는 물론이요 16세기 영국극작가들 전부에게 Seneca는 비극의 대가('the master of tragedy')로 알려져 있었으며,

99) *Ibid.*

100) *Ibid.*, pp. 20-21.

101) *Ibid.*, p. 25.

102) *Ibid.*, p. 24.

103) *Ibid.*

104) *Ibid.*, p. 22.

Greek tragedy에서보다 더 pessimistic한 그들의 ‘a hopeless fatalism’, ‘irresistible fate’가 Seneca에서 온 것이라면서, 특히 *Macbeth*에서 사상과 심상 면에서 Seneca와 가까운 일치를 보이는 대목(‘great Neptune’s ocean’ speech)을 들고 있다.¹⁰⁵⁾ Kenneth Muir는 Hightet가 제시한 예들에 많은 것을 추가하고 Seneca의 영향을 주장했다.¹⁰⁶⁾ M. Doran은 Seneca를 ‘minor importance’로 ‘reduce’하려는 시도를 상당한 양의 ‘contemporary evidence’를 내세워가며 나무라고 있다.¹⁰⁷⁾ 우리는 앞서 Baker가 그의 *Induction to Tragedy* 끝부분에서 동시대증언들을 하찮은 것으로 불성실하게 취급한 것을 본 바 있다. ‘Senecan’비평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Doran의 비판은 계속된다.

It may be true that Elizabethans did not have to learn from Seneca their taste for the violent and the horrible, true that Virgil had taught them about the classical underworld, true that they had their own ghosts and their own impulses to revenge; true that then preachers had long been warning them against the dangers of worldly ambition and the folly of trust in slippery chance. It is just because of this community of interest that Seneca spoke to them with such authority. Moreover, in putting into words with such fluency these things they knew, he gave them the authentic excitement of great literary experience.¹⁰⁸⁾

Philip Edwards는 그의 *The Spanish Tragedy* edition(1959)에서 Kyd가 Seneca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은 이제 증거서류의 제출도 필요없는(‘Kyd’s debt to Seneca needs no documentation’) 사항이라면서 각주를 달아 Seneca영향을 부인하려는 Baker의 *Induction to Tragedy*는 ‘an unsuccessful attempt’라고 단정했다.¹⁰⁹⁾ 또 *The Spanish Tragedy*는 Virgil에게서 온 underworld설명만 빼면 Seneca원문인용, ghost와 Revenge가 조성하는 분위기, Andrea의 prologue, horror들에 이르기까지 Seneca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yd가 어디까지나 독창적인 모방자임을 그는 강조한다. 또 그는 이와 비슷한 Seneca영향논을 *Gorboduc* 등 다른 극들에 대해서도 그의 *Thomas Kyd and Early Elizabethan Tragedy*(1966)에서 하고 있다.

Gorboduc is Senecan in its general shape and scene-structure and in its rhetorical abundance....¹¹⁰⁾

Irving Ribner, E.W. Talbert, G.L. Evans 등도 Senecan influence논을 강하게 폐하지 들이이다.¹¹¹⁾ B.L. Joseph은 Hightet처럼 Seneca가 Elizabeth시대인들에게는 위대한 국작가로

105) Gilbert Highet, *The Classical Tradition: Greek and Roman Influences on Western Literatur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49), pp. 207-209.

106) Kenneth Muir, ‘A Borrowing from Seneca’, *Notes & Queries*, Vol. CXCIV (14 May 1949), pp. 214-216; ‘Seneca and Shakespeare’, *Notes & Queries*, Vol. 201 (June 1956), pp. 243-244.

107) Madeleine Doran, *Endeavours of Art: A Study of Form in Elizabethan Drama*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4), pp. 15-16.

108) *Ibid.*, p. 16.

109) Philip Edwards, *The Revels Plays: The Spanish Tragedy* (London: Methuen & Co. Ltd., 1959), p. xl ix.

110) Philip Edwards, *Thomas Kyd and Early Elizabethan Tragedy* (London: Longmans, Green & Co., 1966), p. 12.

111) Irving Ribner, *Patterns in Shakespearian Tragedy* (London: Methuen & Co. Ltd., 1960),

평가되었다면서 *The Spanish Tragedy*와 *Hamlet*을 ‘two exercises in English Seneca’로 못 박았다. Seneca는 ‘an incomparable model’로서 그들에게 복수주제를 다루는 법, ghost, prologue, induction 등의 활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언어와 문체 상에 있어서도 ‘richness, strength and precision’을 기여했다고 그는 논한다.¹¹²⁾

Arthur Freeman은 Kyd가 직접·간접으로 받은 Seneca의 영향으로 ghost, ghost's prologue, revenge 주제, Seneca 원문인용, Seneca 문체 모방 등을 들면서 Kyd를 Seneca와 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Baker의 시도는 신빙성이 없다(‘unconvincing’)고 말한다. 또 그는 Edwards처럼 Kyd가 단순한 모방자(‘a copyist’)가 아님을 강조한다.¹¹³⁾

한편 Hunter의 anti-Cunliffe campaign 후에도 ‘Senecan’ 비평은 견제한 상태에서 지속되었다. 그 한 예가 F.P. Wilson의 *The English Drama 1485~1585*(1969)이다. 이 책은 고인이 된 Wilson을 기리기 위해 유고를 Hunter 자신이 편집해 낸 것이고 보면 하나의 아이로니를 이루고 있다. Wilson은 Elizabethan tragedy가 받은 Seneca의 영향을 전혀 의문시하지 않으며 Seneca의 영향이 커던 이유는 그의 주제, 주의, 형식이 Elizabeth 시대인들의 구미에 맞기(‘congenial’) 때문이라고 했다.¹¹⁴⁾ 그는 Seneca의 doctrine[Christian audience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Christian belief와의 공존이 가능했다고 함으로써 Hunter와 정반대의 견해를 꾀력했다.¹¹⁵⁾ 그리고 Gorboduc이 받은 Seneca의 영향으로서 그는 plot의 bloody sensationalism, 5막구조, chorus, Messenger, violence의 off-stage 묘사, 대사에 많이 들어있는 sententiousness를 들었다. 한편 dumb show, 도덕극적 요소, 성경에서 온 일부 문체, *Respublica, A Mirror for Magistrates*의 것과 일치하는 주제 등 Seneca 이외의 영향들도 Wilson은 언급함으로써 균형을 기하기도 한다.¹¹⁶⁾

그러나 Hunter에게 Cunliffe는 난공불락이란 것을 깨닫게 할 정도의 논박을 가한 사람은 J.W. Lever였다. Lever는 제아무리 중세의 stage tradition들을 발굴해 낸다고 해도 Seneca가 미친 방대하고 큰 영향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면서¹¹⁷⁾ Baker와 Hunter처럼 이것을 극소화하고 alternative origin들을 다른 고전들과 중세전통에서 찾는 것은 무모한 짓임을 명백히 한다.¹¹⁸⁾

Emorys Jones는 Seneca의 영향을 Ovid의 영향으로 바꾸어 놓은 Baker의 *Induction to Tragedy*와 반 Seneca campaign을 벌인 Hunter의 논문 그리고 이들에 대한 Lever의 반론을 언급한 후에 Lever에 동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Shakespeare가 Seneca의 비극 몇 편

pp. 16-17, p. 22, p. 25, and p. 27; E.W. Talbert, *Elizabethan Drama and Shakespeare's Early Plays: An Essay in Historical Criticism* (1963) (New York: Gordian Press, 1973), p. 72 and p. 474; G.L. Evans, ‘Shakespeare, Seneca, and the Kingdom of Violence’, *Roman Drama* ed. T.A. Dorey and D.R. Dudle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5), p. 123.

112) B.C. Joseph, ‘The Spanish Tragedy and Hamlet: two exercises in English Seneca’ in *Classical Drama and Its Influence* ed. M.J. Anderson (London: Methuen & Co. Ltd., 1965), pp. 121-124.

113) Arthur Freeman, *Thomas Kyd: Facts and Problems* (Oxford: Clarendon Press, 1967), p. 66.

114) F.P. Wilson, *The English Drama 1485~1585* ed. G.K. Hunter (Oxford: Clarendon Press, 1969), p. 126.

115) *Ibid.*, pp. 126-127.

116) *Ibid.*, pp. 132-134.

117) J.W. Lever, *The Tragedy of State* (London: Methuen & Co. Ltd., 1971), p. 8.

118) *Ibid.*, p. 16.

은 적어도 전체를 읽어 알고 있었으며, 그의 style의 특징들도 모방했으며, 16세기 동시대 인들과 더불어 Seneca의 style의 세부에 대한 ‘a subtler and a more inward appreciation’을 지니고 있음을 믿고 있다. 또 그는 Schmidt의 ‘Seneca’s Influence upon Gorboeduec’을 매우 유용한 논문이라면서 그의 본에 따라 *King John*, *Titus Andronicus*, *Richard III*에서 Shakespeare가 Seneca처럼 ‘hand’, ‘heart’ 등의 단어를 선호한 것을 밝히고 있다.¹¹⁹⁾

Hunter는 그후 굴복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40여 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논문 ‘*Seneca and English Tragedy*’를 발표하고 Cunliffe(이번에는 *Cambridge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Vol. V* (1910)에 실린 ‘Chapter IV: Early English Tragedy’를 공격함), Charlton, Fansler, Eliot 등 ‘Senecan’ 비평가들을 공격한다. 그는 특히 이들의 *post hoc ergo propter hoc* 논법을 성토한다. 즉 Elizabethan tragedies와 Senecan tragedies에 유사한 특성들이 들어 있을 때 이것들이 후자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자에 들어 있게 되었다는 ‘inescapable proof’를 확립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문제의 유사한 특성들이 제 3 자에도 들어 있을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Elizabethan tragedies에서 보는 stichomythia, ghost, five-act structure, rhetorical speech, horror 등은 Seneca에도 있고 영국의 고유한 극들, *Mirror for Magistrates*, Terence, Ovid 등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Seneca에서 온 것이란 논법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Hunter는 Eliot이 극의 끝에서 자신의 생을 회고하는 Othello를 Senecan으로 언급했으나 기실 Seneca의 어느 극에서도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으며, Othello가 자기극화하는 것은 Medea의 ‘Medea superest’에서 볼 수 있으나 이는 Sophocles의 Oedipus, Ibsen의 Hedda를 비롯하여 어느 극작가의 인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한다.¹²⁰⁾

VIII

결론적으로 Farnham, Baker, Ure, Hunter가 벌인 anti-Senecan campaign으로 인해 Seneca를 유일한 overriding influence로 보는 일은 지양되었다. 적어도 이것은 그들의 큰 공로임에 틀림없다. 그 결과 *Titus Andronicus*에는 Seneca와 Ovid의 두 큰 영향이 혼재해 있다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

E.M. Waith는 Ovid에 치우친 것이긴 하지만 *Titus Andronicus*가 Seneca보다는 Ovid로부터 더 직접적인 영향을 입었다(‘however important the Senecan model may have been, Ovid exerted a more direct influence’¹²¹⁾란 말로 전적으로 Ovidian이라고 한 Baker의 입장은 완화시켰으며, Talbert는 banquet의 device는 Seneca의 *Thyestes*의 윤리적 상황에서 왔으나 Ovid의 영향이 항상 극에 나타난다면서 ‘this play exaggerates both Seneca’s controlled horror and Ovid’s condensation of a heroic bloodiness’라고 말해¹²²⁾ 보다 양 영향의 균등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균등성을 Geoffrey Bullough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119) Emrys Jones, *The Origins of Shakespeare*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77), pp. 267-268.

120) G.K. Hunter, ‘Seneca and English Tragedy’ in *Greek and Latin Studies: Literature and Its Influence: Seneca* ed. C.D.N. Cost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pp. 166-170.

121) E.M. Waith, ‘The Metamorphosis of Violence in *Titus Andronicus*’, *ShS* 10 (1957), p. 40.

122) *Ibid.*, p. 136.

The author of *Titus Andronicus* realized that some of the incidents in the story belonged to the traditions of Seneca and Ovid, and treated his play as a Senecan drama with a strong Ovidian flavour.¹²³⁾

다음으로 anti-Senecan campaign이 이룩한 것은 앞서도 언급하고 예도 들은 바 있지만 Seneca 영향 연구에 대한 재평가의 기운을 조성한 것이다. 즉 양 극단론을 화해시키는 중간 노선자들을 탄생시킨 것이다.

추가로 한 두 예를 들어본다. Catherine Belsey는 주인공들이 작심을 못하고 주저하는 내용의 독백이 Seneca의 비극과 Elizabethan tragedy에 공통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Seneca는 도덕극에 결해 있던 본격적인 독백('fully developed deliberative soliloquies')의 개념을 공급해 주었을 뿐 Elizabethan tragedy의 독백은 본질적으로 도덕극의 psychomachia의 후예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Elizabethan soliloquy들에 나타난 'the scruples and uncertainties'는 이 두 전통의 'confluence'의 결과라는 것이다.¹²⁴⁾ 그녀는 거듭 두 전통이 미친 영향 내지는 그것이 Elizabethan tragedy의 특성을 발전시킨 공을 강조한다.

...while the morality tradition was the main source of the substance of this experience, Seneca provided the concept of the soliloquies in which it is expressed, that the classical and the native streams of influence converged in the development of this specific feature of Elizabethan tragedy.¹²⁵⁾

역시 중간노선자라고 부를 수 있는 Norman Berlin은 Seneca가 *Gorboduc*과 기타 Elizabethan tragedy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을 일부 비평가들이 극단적으로 과장한 결과 반작용을 불러 동일한 증거를 다르게 분석해 함으로써 Seneca의 영향을 송두리채 부인하는 정반대의 극단을 초래했다고 했다. *Gorboduc*은 모방의 시대의 산물이요, Renaissance synthesis이므로 그것의 어느 한 influence를 분리해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무모한 시도를 하여 극에 이른 경우가 Cunliffe와 Baker라고 Norman은 말한다.¹²⁶⁾ 따라서 그에게는 우리가 앞서 소개한 Herrick, Wells와 같은 선배 중간노선자들의 입장이 매우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Berlin은 *Gorboduc*의 형식—5막구조, chorus, violence의 off-stage 처리, unities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점—이 Senecan으로 보아 그것을 Senecan tragedy의 중요한 한 예임은 상식이라고 일단 말한 다음에 5막구조는 classical comedy에서 왔을 수도 있고, chorus와 messenger의 역할도 Seneca의 그것들과 차이를 보이며, unities의 부재는 작가들의 정치적 목적에 연유되었을 수 있음을 추가하고 있다.¹²⁷⁾ 이 외에도 그는 fortune의 변덕성은 Seneca 혹은 Boethius에서 왔을 수 있으므로, 'blood will have blood'의 주제는 Senecan 못지 않게

123) Geoffrey Bullough,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Vol. VI: Other Critical Play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p. 23.

124) Catherine Belsey, 'Senecan Vacillation and Elizabethan Deliberation: Influence or Confluence', *Renaissance Drama*, NS Vol. VI (1973), pp. 65-66.

125) *Ibid.*, p. 88.

126) Norman Berlin, *Thomas Sackville* (New York: Twayne Publications, Inc., 1974), p. 94.

127) *Ibid.*, pp. 95-96.

Hebraic일 수 있고, 짚은이의 impetuosity 또한 cultural commonplace로서 Seneca와 Cicero 그 어느 쪽에서 왔을 수 있고 통치자에 복종해야 한다든가 mob의 변덕 등 정치적 주제 역시 Seneca 이외의 고전작가들, Bible, Tudor chronicles 중 어디에서도 유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융통성 있게 말한다.¹²⁸⁾ 한편 그는 native influence도 지적하고 있는데 *Gorboduc*은 도덕극의 didactic tradition에 속하며 선악의 세력들의 논쟁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Lydgate, *Mirror for Magistrates*의 tragical narrative와 연결되며, dumb show는 교훈적 목적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native element라고 했다. 그는 dumb show가 Italy의 *intermidii*의 영향이라는 Cunliffe의 주장과는 달리 medieval pageantry를 source로 갖는다고 주장한다.¹²⁹⁾ 그러나 그는 ‘Senecan influence cannot be denied’를 거듭 되풀이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약 1세기에 걸쳐 있었던 Seneca가 16세기 영국의 비극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개관해 보았다. 극단론에는 언제나 무리와 한계가 따름을 보았고, 마음을 비운 겸허한 자세로 상대방의 논의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냉철하게 비판할 때 비로소 진리에 접근할 수 있음을 절감했다. Seneca의 영향논의의 진리는 아마도 Cunliffe와 Baker 사이의 어느 지점, 어쩌면 Cunliffe쪽으로 좀 치우친 어느 지점에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Seneca 영향연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Baker가 너무 주관적으로, 불성실하게 해석하며 의미부여를 거부한 Sidney, Nashe 등과 같은 동시대 비평가들과 문인들의 Seneca평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가능하면 Seneca 비극들이 Roma 시대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고, 과연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캐내어야 할 것이며, Seneca비극의 Elizabethan translation 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Elizabeth시대의 극작가들이 Seneca의 비극을 읽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영향을 직접간접으로, 음양으로 받은 사실은 명백하다. 또 Seneca는 Elizabethan tragedy가 받은 유일한 영향은 아니지만 중요한 영향임도 부인될 수 없음을 보았다.

128) *Ibid.*, p. 97.

129) *Ibid.*, pp. 99-100.